

# 오천피 훈풍에 공모주 열기 재점화... 케이뱅크 흥행 '관심'

코스피 강세... 공모주 자금 재유입  
케이뱅크 청약, 'IPO 풍향계' 주목  
내달 바이오·헬스케어 대어 줄대기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주부 이래연 씨(47)는 지난해 친구를 따라 처음으로 공모주 투자를 시작했다. 예·적금이 투자자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의 생각은 이때부터 달라졌다. 에임드바이오와 이노테크 공모주에 청약해 단숨에 1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여유자금을 언제든 뺄 수 있도록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넣어둔다. 또 주식 투자 커뮤니티에 수시로 들어가 기업공개(IPO) 일정을 챙긴다. 이 씨는 "연초부터 증시가 달아오르는 걸 보니 공모주 대박도 계속될 것 같다"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

국내 증시가 '오천피(코스피 5000)' 시대를 열면서 공모주 투자 열기가 올해도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따따블'(공모가의 4배 상승) 행진을 이어간 공모주를 보며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가 생긴 데다 올해도 초대어급 공모주가 줄줄이 출격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ChatGPT로 생성한 '기업공개(IPO)' 이미지.

하지만 오천피 증시에 대한 거품(과열) 우려가 점증한 가운데 공모주도 무턱대고 투자에 나섰다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23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마감한다. 올해 첫 코스피 대어로 꼽히는 케이뱅크의 흥행 여부는 향후 IPO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희망 공모가 밴드(8300~9500원) 하단인 83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했다. 공모금액은 4980억원,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3조3673억원이다. 기관수요예측에는 2007개 기관이 참여해 1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주문 규모는 약 58조원에 달했다. 세 번째 상장 도전 끝에 몸값을 낮추는 전략을 택한 만큼, 상장 이후 주가 흐름에 대한 기대와 경계가 동시에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공모가 밴드 하단으로 정한 점을 두고 최근 공모시장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지수 랠리로 투자심리는 개선

됐지만 기관 수요는 가격 매력도를 중시하는 보수적 태도를 유지했다는 분석이다. IPO 시장에서는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공모주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을 용인할 정도의 과열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케이뱅크 이후에도 2월 청약 일정은 이어진다. 오는 23~24일에는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에스티엠과 엑스비스가 나란히 일반 청약에 나선다. 에스티엠은 모델 장운주·한혜진이 소속된 브랜드 컨텐츠 전문기업으로,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브랜드 마케팅 및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모가는 지난 20일 8500원으로 확정됐다. 엑스비스는 지능형 고출력 레이저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희망 공모가는 1만1500원으로 결정됐다. 두 회사 모두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에서 가격을 확정했다.

3월 들어서는 바이오와 의료·소재 기업들의 IPO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가면역질환 신약 개발사 아이엠바이오로직스, MRI 조영제 기술을 보유한 인벤테라, 항암·안과 치료제 개발사 카나프테라퓨틱스 등이 상장을 준비 중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메추와 냉각마취 기술로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리센스메디컬 등도 청약 일정이 거론된다. 성장 산업 중심의 공모가 이어지면서 투자자 선택지는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올해 IPO 시장이 회복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코스피 상승세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지난해 일부 대형 딜의 일정 순연 효과, 상장 준비 기업 증가 등이 맞물렸다는 분석이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올해 신규 상장 기업이 80여곳에 달하고 공모 규모도 7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수 급등에 따른 기대감이 공모주 시장으로 과도하게 확산될 경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케이뱅크의 경우 구주매출 비중과 공모가 밴드 하단 확정이라는 점이 투자 판단의 변수로 꼽힌다. 상장 직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경우 후속 딜의 공모가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종경 흥국증권 수석연구위원은 "풍년의 해, 코스피 첫 수확이기에 케이뱅크의 신규 상장과 그 영향이 향후 IPO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AI, 투자 인프라로... 해외 ETF까지 확장” SOL 코리아고배당, 순자산 5000억 돌파

### 인터뷰 왕현민 토스증권 PO

AI 시그널, 주가 변동 포착해 연결  
美 어닝콜에 실시간 채팅 기능 도입



왕현민 토스증권 AI 사일로 프로젝트 오너(PO) /토스증권

토스증권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 정보 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시그널을 해외 상장지수펀드(ETF)까지 확장하는 한편, 미국 기업 어닝콜에는 실시간 채팅 기능을 새롭게 도입한다. AI를 단순한 보조 기능이 아닌, 투자자가 시장을 이해하는 핵심 인프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토스증권에 따르면 어닝콜 실시간 채팅 기능은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며, 해외 ETF를 대상으로 한 AI 시그널 확장은 3월 내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토스증권의 AI 전략을 총괄하는 왕현민 AI 사일로 프로젝트 오너(PO)는 “AI는 투자 판단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맥락을 정리해주는 도구여야 한다”며 “토스증권에 오면 믿고 참고할 수 있는 투자 정보가 있다는 인식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 해외 ETF까지 넓히는 AI 시그널... “설명 난도가 가장 높은 영역”

토스증권 AI 전략의 중심에는 ‘AI 시그널’이 있다. 개별 종목의 유의미한 주가 변동을 실시간으로 포착해, 관련 뉴스와 공시를 연결하고 등락 배경을 설명해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개별 종목과 주요 지수 중심이었지만, 토스증권은 이를 해외 ETF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왕 PO는 해외 ETF를 개인투자자가 이해하기 가장 까다로운 영역으로 꼽았

도록 하기 위해서다.

왕 PO는 “수만 명이 동시에 어닝콜을 듣지만, 대부분은 초반만 듣고 이탈한다”며 “채팅을 통해 몰입도를 높이고, 어닝콜을 단순한 청취가 아니라 ‘이해하는 경험’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어닝콜 실시간 번역과 요약 기능에 채팅을 결합해, 투자자들이 실적 발표의 핵심을 함께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실시간 채팅이 리딩방이나 금융사기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욕설·비방·외부 링크 차단, 실시간 모니터링 등 기존 커뮤니티 관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왕 PO가 AI 전략에서 가장 강조한 요소는 ‘정확도’다. 토스증권의 AI 서비스는 자동 생성되지만, 사람의 검수 과정을 전제로 운영된다. AI 시그널은 하루 수백 건씩 생성되며, 현재도 운영 인력이 직접 모니터링하며 오류를 걸러낸다.

이 때문에 토스증권은 외부 솔루션 대신 인하우스 AI 전략을 택했다. 자체 모델을 구축해야 품질을 통제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추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왕 PO는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틀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며 “출처 공개와 운영 인력의 개입이 함께 가야 신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왕 PO는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대신할 수 없고, 대신 정확한 맥락을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스증권의 AI 서비스는 수익보다는 신뢰를 기준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신한운용, 개인 누적 순매수 3181억

신한자산운용은 ‘SOL 코리아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상장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상장 이후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 금액은 3181억원으로, 같은 기간 국내에 상장된 36개 고배당 ETF 중 자금 유입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자산 규모 역시 지난해 말 2624억원에서 5327억원으로 연초 이후 2700억원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총괄은 “국내 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배당시즌을 앞두고 국내 고배당주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SOL 코리아고배당 ETF는 단순 고배당 종목 나열이 아니라, 세제 혜택과 주주환원 정책을 구조적으로 반영해 실질 배당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SOL 코리아고배당 ETF’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감액배당 기업의 세제 혜택, 자사주 매입·소각 장려 정책 등 최신 배당정책 기조를 ETF 운용 전략에 반영한 차세대 고배당 상품이다. 단순히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편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업과 감액배당 실시 기업 등 정책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신하은 기자 godhe@

## 키움증권 사회공헌단, 나눔으로 온기 전해

작년 13개 기관 후원

키움증권 사회봉사단 ‘키움과나눔’이 단순한 기부를 넘어 임직원이 함께하는 참여형 봉사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키움과나눔이 총 13개 기관을 후원하며 참여형 임직원 봉사를 11회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성인발달장애인 나들이 동행,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특식 배식 봉사 등 다양한 참여형 봉사를 추진했다.

키움과나눔은 지난 2012년 키움증권 사내사회봉사단으로 창립됐다. 사회적 약자가 우리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다.

키움과나눔은 창립부터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활동에 힘써왔다. 장애인 및 결혼 아동과 정기적으로 만나 체험 활동을 함께하고, 낯은 집을 수리하고 골목 벽화를 그리는 등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에 임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봉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엔 서울 영등포구 소재 2가구와 동작구 소재 4가구를 임직원들이 직접 수리했다. 설과 추석 명절을 비롯한 초복, 말복, 연말 등엔 특식을 나누는 배식 봉사도 진행했다. /신하은 기자